


고비 넘긴 KIA, 선두 굳히기 들어간다

21~23일 롯데·24~26일 두산전

지난주 4승 1무 1패... 분위기 반전
대체 선발 호투 속 부상 복귀 임박
나성범·최형우 승부처서 맹활약

 지난주 NC다이노스와 주말 원정 3연전에서 싸늘이 승리를 챙기며 선두 수성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굳히기에 들어간다. 침체된 흐름을 180도 뒤집은 만큼 상승세를 이끈 주 롯데라이언츠와 두산베어스를 상대로도 이어간다는 각오다.

KIA는 지난주 두산을 상대로 1승 1무 1패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 후 NC를 상대로 3승을 챙기며 올 시즌 29승 1무 16패(승률 0.644)를 기록했다. 두산과 3연전 직후 선두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다시 승자를 벌리며 선두 수성에 성공했다.

대체 선발진이 버티기에 성공한 것이 고무적이었다.

KIA는 지난 17일과 18일 NC를 상대로 연달아 대체 선발이 출격했지만 모두 승리를 챙겼다. 17일에는 김건국이 1이닝 1실점을 기록한 뒤 햄스트링 뭉침 증세로 교체됐지만 김사운이 3이닝 1실점(비자책)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또 18일에는 6선발로 자리매김한 황동하가 5이닝 2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치며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김건국

| 순위 | 구단 | 게임 | 승 | 패 | 무 | 승률 | 승차 |
|----|-----|----|----|----|---|-------|------|
| 1 | KIA | 46 | 29 | 16 | 1 | 0.644 | - |
| 2 | 삼성 | 46 | 26 | 19 | 1 | 0.578 | 3 |
| 3 | NC | 46 | 25 | 20 | 1 | 0.556 | 4 |
| 4 | 두산 | 49 | 26 | 21 | 2 | 0.553 | 4 |
| 5 | LG | 48 | 25 | 21 | 2 | 0.543 | 4.5 |
| | SSG | 47 | 25 | 21 | 1 | 0.543 | 4.5 |
| 7 | 키움 | 45 | 19 | 26 | 0 | 0.422 | 10 |
| 8 | KT | 47 | 19 | 27 | 1 | 0.413 | 10.5 |
| 9 | 한화 | 46 | 17 | 28 | 1 | 0.378 | 12 |
| 10 | 롯데 | 44 | 15 | 27 | 2 | 0.357 | 12.5 |

이 말소된 자리에는 신인 김민재가 콜업됐다. 육성 선수 신분이었던 김민재는 이번 달 퓨처스리그 네 경기에서 무실점하며 정식 선수로 등록됐다.

예열을 마친 나성범과 최형우의 활약도 돋보였다. 시즌 타율이 8푼까지 떨어지며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나성범은 지난주에 만 세 차례 홈런과 두 차례 결승타를 뽑아냈다. 최형우는 주간 타율 0.346(26타수 9안타)를 기록하며 7타점 3득점을 생산했다.

●롯데, 아쉬운 성적 속 선발 강세
롯데는 지난주 KT와 두산을 상대로 2승 1무 2패로 승패 마진 0을 기록했다. 순위 역시 최하위인 10위에 머물러 있으나 9위 한화를 0.5경기 차로 추격하며 탈락의 희망을 품고 있다.

KIA는 롯데를 상대로 제임스 네일-윤영철-대체 선발이 출격할 예정이다. 네일



KIA 황동하가 지난 1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맞대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은 지난 15일 두산전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으나 승리 투수가 되는 행운을 안고 이번 주 2회 등판을 준비했다. 윤영철은 5이닝 2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펼쳤다.

대체 선발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건국이 햄스트링 뭉침 증세로 이탈하면서 김사운이 자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나 퓨처스리그에서 새로운 얼굴을 콜업할 수도 있다.

이의리와 임기영이 퓨처스리그 실전 등판으로 점검을 준비 중이어서 일단은 대체 선발이 나설 전망이다.

롯데는 반즈-박세웅-윌커슨으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발진이 출격을 준비한다. 지난주 우천 취소로 나균안의 순서가 조정되면서 외인 원투펀치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즈는 지난 14일 KT전에서 6이닝 1실점, 박세웅은 16일 KT전에서 6이닝 무실점, 윌커슨은 17일 두산전에서 6.2이닝 무실점으로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챙겼다.

롯데는 팀 주간 타율이 0.229, OPS(출루율+장타율)가 0.619로 가장 침체됐지만 나승엽과 황성빈이 분전했다. 나승엽은 다섯 경기에서 타율 0.429(14타수 6안

타)로 3타점 2득점을 생산했고, 황성빈은 다섯 경기에서 타율 0.313(16타수 5안타)으로 4득점을 뽑아냈다.

●두산, 지리발 타선 경계 대상
두산은 지난주 KIA와 롯데를 상대로 2승 2무 2패로 역시 승패 마진 0을 기록했다. 하지만 가을야구권 팀들이 고배를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5위에서 4위로 올라서는 행운을 안았으나 선두와 격차는 2.5경기에서 4경기로 벌어졌다.

KIA는 두산에 대해 선발-양현종-네일이 선발 등판을 준비할 순서다. 6선발 황동하가 투입되고 양현종과 네일이 뒤를 잇는 그림이다. 네일은 한국 무대 두 번째 5일 간격 등판을 준비한다. 네일은 지난 달 9일 LG전에서 7이닝 무실점, 14일 한화전에서 5.2이닝 2실점으로 무난하게 주 2회 등판을 소화했다.

두산은 광빈과 브랜든, 최원준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한다. 광빈은 지난 18일 롯데전에서 5.1이닝 3실점에도 승리를 챙겼고 브랜든은 주 2회 등판에서 각각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1자책점)으로 위력을 과시했다. 최원준은 KIA 타선에 고전하며 3.1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됐다.

두산의 지리발 타선은 경계 대상이다. KIA는 지난주 두산과 홈 주중 3연전에서 강승호와 김재환, 양석환에게 홈런포를 허용했다. 또 허경민에게 15타수 9안타로 3타점 5득점을 내주는 등 크게 고전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자책’ 이정호 “감독이 졸보여서 선수들에 미안”

지난 19일 전북에 0-3 완패
“교체 판단 실수 후회 남임”

이정호(사진) 광주FC 감독이 전북현대 모터스전 패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광주는 지난 19일 광주죽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라운드 홈경기에서 0-3으로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올 시즌 5승 8패(승점 15·득점 21)에 머무르며 6위에서 7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전북은 3승 4무 6패(승점 13)로 11위로 올라서며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감독은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부족해서 진 경기다. 축구는 골을 넣는 경기고 골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경기인데 그 부분이 잘 안됐다”며 “골이 안 나온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구조적인 문제는 수비에서 개인적인 실수가 많은 것이고, 조직적으로 무너지는 부분보다 개인적인 작은 실수에서 자주 실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감독은 이날 패배가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안영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교체를 단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며 “감독이 졸보여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책했다.

또 “전반에 교체를 하면서 전문 센터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허율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고 시너지가 나왔을 것이다. 제가 졸보여서 못 넣은 것이 후회된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송원대 이상의, 청소년아시아 주짓수선수권대회 우승

송원대 주짓수팀 이상의(스포츠지도학과 2년·사진)가 지난 5-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4 청소년 아시아 주짓수 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대표로 출전해 U21(21세 이하) 남자 +94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상의는 준결승에서 이란 선수를 16-0으로 완파한 뒤 결승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를 백초크 서브미션으로 승리해 정상에 올랐다.

이상의는 지난해 3월 송원대 스포츠지



도학과에 입학해 그해 7월에는 2024년 국가대표선발전에 참여할 광주시 대표 선발전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U21 남자 +94kg)를 차지했고, 2023 JBJF 아시아주짓수 챔피언쉽과 2023 청소년세계주짓수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촉망받는 주짓수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20일 학교 강당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체육중 제공

광주체육중 “전국소년체전서 학교 명예 드높일 것”

제53회 참가 선수단 결단식
18개 종목 총 203명 참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체육중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체육중은 20일 학교 강당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다.

결단식에는 이정선광주시교육감, 정성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종민 광주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이병규 광주체육중·고 총동문회장, 육철수 광주체육교장, 광주체육중 감독고사·지도자 임원 및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광주체육중 선수단은 근대3종 등 18개 종목에 선수 163명과 임원 40명 등 총 203명이다. 광주체육중은 오는 25-28일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강세 종목인 역도와

레슬링, 양궁 등 14개 종목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9개 등 총 39개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도 여자 81kg 이다은(3년)이 금 1개(인상)와 은 2개(용상·합계)를 노린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1kg 김성수(3년)와 자유형 80kg 김수형(2년)은 금빛 굴리기에 도전한다.

남자 양궁 모성용·김종연(이상 3년)·한승제(2년)가 단체전 금빛 과녁을 조준하고, 김종연은 50m에서 금빛 시위를 당겨 2관왕을 노린다.

여자 사격 정승희·김민정·라현영(이상 3년)은 공기소총 단체전 금빛 총성에 도전하고, 남자 수영 김민우(3년)가 접영 200m 금빛 물살을 가르겠다는 각오다.

여자 조정 싱글스킬의 노효림(3년)과 더블스킬의 권지영·이수아(이상 2년)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자 근대3종의 이지아(3년)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지아는 단체전에서 송현서(3년)·양보민·이우리(이상 2년)와 호흡을 맞춘다.

광주체육중은 지난해 울산 일원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금 6·은 12·동 12개 등 총 30개 메달을 획득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준재 광주체육중 교장은 “이번 체전을 대비해 선수와 지도자들이 혼연일체로 힘든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다”며 “광주의 정신으로 그동안 갈고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체육 발전은 물론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